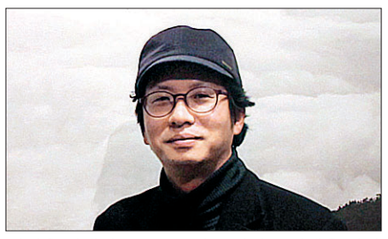
# 전통 한지 위에 펼쳐진 전국 명산과 사찰의 앵글속 풍경

## 임채욱 사진전 'Inside Mountains'



임채욱 작가의 사진전이 3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작가는 설악산, 덕유산 등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렌즈에 담아 한지에 인화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쳤다. 사진은 백담사 초입 설경.



사진은 현대적 소통도구라고 말하는 임채욱 작가

고성 금강산 화암사에서 방학을 보내던 중학교 1학년 소년은 탱화와 보살상, 달마도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림에 재미를 붙인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선을 했고, 화암사 주지 응산 스님은 매달 용돈을 보내주며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격려했다.

그렇게 청년이 된 그는 서울대 동양화과에 입학해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좀더 현대적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섰다. 그때부터 전국 명산을 돌며 셔터를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설악산을 촬영하던 중 어린시절 스님이 문득 생각나 금강산 화암사에 들렀다. 주지 응산 스님은 불혹에 접어든 그를 단번에 알아봤고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30년전 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꺼내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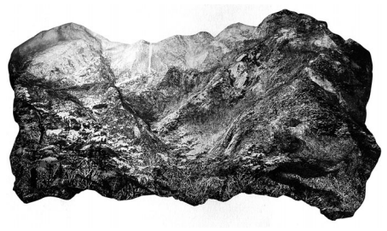
사진작가 임채욱 씨의 이야기다. 그가 그동안 찍은 사진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3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임채욱 사진전 'Inside Mountains'. 작가는 설악산, 덕유산, 인왕산 등의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카메라로 그린 산수화' 라는 명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사진, 설치(입체), 영상 등 66점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는 △구름 – 기운이 생동하다 △설산–뼈대를 드러내다 △능선–숨결이 흐르다 △나무–생명을 품다 △바위–영원을 꿈꾸다 △인왕산–영원을 꿈꾸는 바위 등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사진을 한지에 인화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또한 한지를 부조화한 사진 작품은 미술사상 최초라고 할만큼 독특한 형태의 예술을 창조해내고 있다.

"늘 동양화를 그리다 보니 산수화에 관심이 많았고 산에 대한 관심도 많았죠. 그리고 어느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것이 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데 좀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부조화한 작품을 선보이는데, '한국산의 내면' 을 '한지' 에 담아내면서 '부조사진' 을 우연히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 초입 눈오는 풍경과 설악산 천불동 계곡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는 자연을 담아내는 과정은 지극히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산으로 가는 것은 자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 산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식 내면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죠. 비우고 또 비우면 세상사의 많은 것들이 지워지고 텅빈 여백이 됩니다."

**사진, 설치, 영상 등 66점 전시**
**'구름' '설산' 등 6개 섹션으로 구성**
**"카메라로 그린 산수화"**
**2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설악산 토왕골 부조 사진

8년 동안 산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온 임채욱 작가. 등산을 하기에도 힘든 지리산을 1박 2일 동안 카메라 장비를 동원해 종주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과 다름이 없었으리라. 울산 바위를 찍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기도 했고 겨울철에는 영하 20도가 되는 산에서 맨손으로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산은 끊임없이 그를 불렀고 그는 산에서 영혼을 발견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산을 찍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산은 자연 환경이기 이전에 영혼의 영역이죠. 저는 작업을 할 때마다 살아있는 산을 만납니다. 제 자신과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매개체가 곧 산이죠."

산은 자연의 절대성 위대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끊임없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 아니던가. 역시나 작가는 산에서 그림을 배웠고 산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으며 산에서 자신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산을 담는 작가는 자연의 섭리를 온몸으로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의 내면을 닦고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10여년 수행 모임을 통해 자신을 닦아 나가는 임채욱 작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로 산을 담으며 그 산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신비의 승무로 구도의 세계 펼친다

### 2014,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 4월 3일~27일 성균소극장서




2009년 30일간의 승무 이야기, 2010년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2013년 108승무에 이은 대학로 승무 시리즈가 새롭게 펼쳐진다. '2014,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가 봄(4월 3일~27일) 가을( 9월 4일~28일)에 나뉘어 총 32회 공연된다.

100일 승무–108 승무로 이어온 전통무용가 이철진 씨의 승무 공연은 '구도의 승무, 그 40분의 신비스러운 완판' 의 세계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오직 승무만을 고집하는 전통춤꾼으로 8년째 승무 장기공연을 소극장에서 지속하고 있는 이철진 씨는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이철진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전승계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승무를 승무답게 해석하는 몇 안되는 불교예술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공연이 펼쳐지는 대학로 성균소극장의 구슬주머니 주식회사는 2013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불교문화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는 승무 이외에도 진주 검무, 교방굿거리춤, 살풀이춤, 한량무, 맨손 살풀이, 교방살풀이춤, 소고춤, 창작춤 내안의 너 등 이철진의 춤벗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전석 2만원이며 봄공연은 대학로 성균소극장서 4월 3일~27일 매주 목~토요일 공연된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 해탈의 정토세계 뮤지컬 '니르바나' 로

### 불교음악과 전통 어우러진 무대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3월 22일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가 3월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자명스님(영종불교회관 주지)이 기획, 제작한 '니르바나' 는 모든 번뇌와 집착을 물리친 해탈의 정토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서원이 담긴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 1월 인천과 창원에 이어 서울에서 공연된다.

불교음악과 전통 국악, 그리고 현대적 예술 장르가 결합된 이번 공연의 출연진으로는 찬불 가수 자명 스님과 춤꾼 하유스님, 국창 박윤정 교수, 젊은 국악인 정남훈 예술감독, 시노래 낭송가 김차경, 다례 퍼포먼스 명인 최송자,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자산 50호인 영산재 이수자 효성스님, 소리코리아 예술단원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여기에 뿌리패 무용단과 국악실내악단 '티나' 와의 협연이 더해진다.



뮤지컬 니르바나 공연 장면

이번 공연을 기획, 제작한 자명 스님은 "시간적, 재정적,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불교문화를 알려보겠다는 의지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며 취지를 설명했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 좋은벗풍경소리 '연등회의 노래 9집' 발표

### 박애리 · 우순실 등 참여

불기 2558(2014)년 연등회를 맞아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찬불가의 대중화와 보급에 앞장 서오고 있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연등회의 노래 9' 를 내놓았다.

풍경소리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노랫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가사를 담아 더욱 풍성한 내용을 선보였다" 며 "또한 아름다운 노랫말(가사)로 명성 높은 덕신 스님을 비롯해 반영규, 이종만, 정유탁 등도 참여했다" 고 전했다.

이번 앨범에는 국립창극단과 TV 프로그램에서 활동중인 국악인 박애리가 '초파일 아리랑' 과 '하늘 꽃 내리고' 를, 가수 우순실이 '벗이여 오라' 에 참여해 연등회 전통의 멋과 흥겨움을 잘 표현했다.

또한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이 노래에 참여해 신명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연등회의 노래 9집 앨범 표지

이외에 연등회의 노래 9집은 축제의 신바람나는 분위기가 물씬 넘치는 '해피 스마일', '환희의 노래', '우린 꽃이다', '허그' '님이 오신날' 등 총 9곡의 노래와 각 사찰과 단체에서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곡의 연주곡도 수록되어 있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명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3중추돌사고에서 살아나다

저는 현지사 부산분원에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7년 아들 전규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10월 26일 강서구 서부산 삼거리에서 아들이 새벽 출근길에 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차의 타이어가 날아가고 뒷문 유리는 다 깨졌고 이미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타박상 하나 없이 멀쩡했고 후유증을 걱정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기적이겠지요. 그리고 아들은 100일 기도에서 발원했던 좋은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저의 기도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훈가피임을 확신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박문자)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4월 부산분원 정기법회 : 4월 6일(일) 오전 9시**

육도윤회와 지옥 극락의 실재, 인간본체인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인간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의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 만현 큰스님 동영상 법문(235회 째)을 현지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 됩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매월 음력 15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556-5150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